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사례집
2023-2026년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헤맨 만큼 남겨진 정답 없는 교육의 기록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목 차

1. 개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3

사례공유회를 열기까지 9

2. 사례 나누기

0set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14

극단 드라마라운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20

선사랑드로잉회 서로 다른 몸이 만드는 예술 26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예술로 오래오래 만나기 32

3. 의견 나누기

예술을 의심하며 질문을 발명하기 최선영 40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실험이 알려지게 안지언 42

현장에서 고민하고 수정한 과정 기록은 귀중한 자산 정희정 43

4. 부록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참여 단체 46

1. 개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사업 목적

- 장애(예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서 **향유 활동**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예술단체 및 비장애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선정된 **단체**에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체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약 7억 4천만 원입니다.
- **다년 지원(2년)**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2차 연도 연속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업 내용

- **장애인 향유**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 **장애예술인 양성**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유형		예산	사업 내용	지원 규모(단체)
향유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740백만 원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공연·시각·문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4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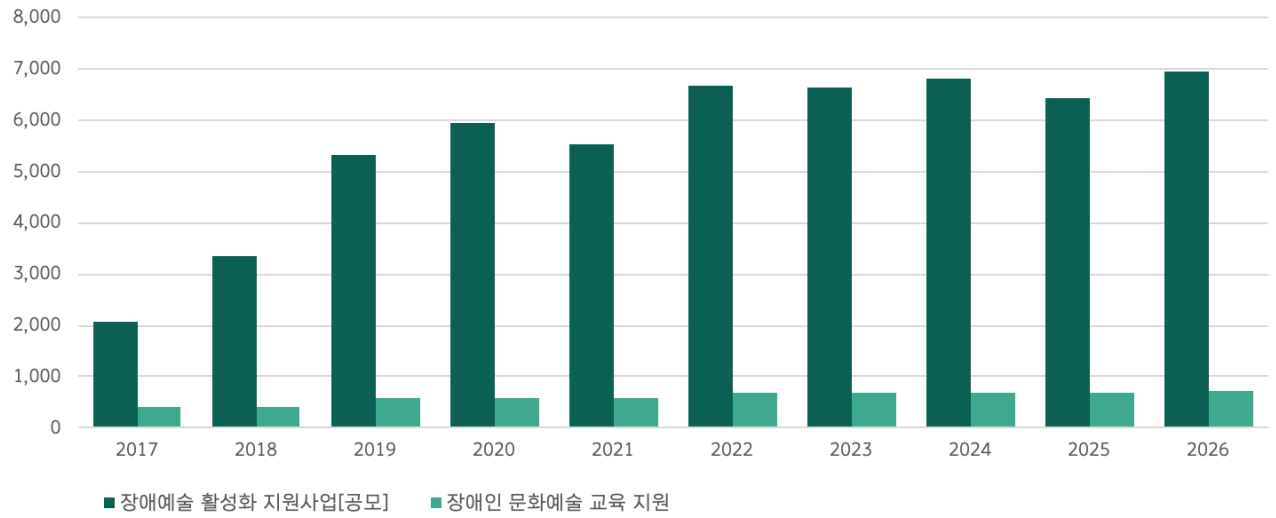
*2026년 공모 기준

돌아보기(2017-2026)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함께누리 지원’ 예산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되면서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내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 사업명은 **2017년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 강화 지원’**에서 **2018-2022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라는 현재의 사업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산 변화 *단위: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2,067	3,360	5,310	5,940	5,525	6,670	6,640	6,816	6,413	6,92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00	400	600	600	600	700	700	700	700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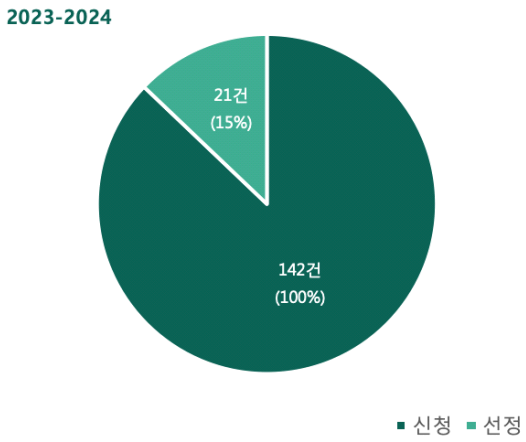
- 초기에는 향유 목적의 장애인 대상 교육, 장애예술인(강사 및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3개의 유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부터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으로 옮기고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2017년 400백만 원**으로 시작해 2019년 600백만 원, 2022년 700백만 원, **2026년 740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2026년 기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전체 예산 대비 약 10.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 2023년부터 다년(2년)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42건 신청 21건 선정, 2025년 연속 지원 단체 선정 시 157건 지원, 25건 선정으로 **15~16%의 선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선정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2023년 약 3,324만 원에서 **2025년 약 2,948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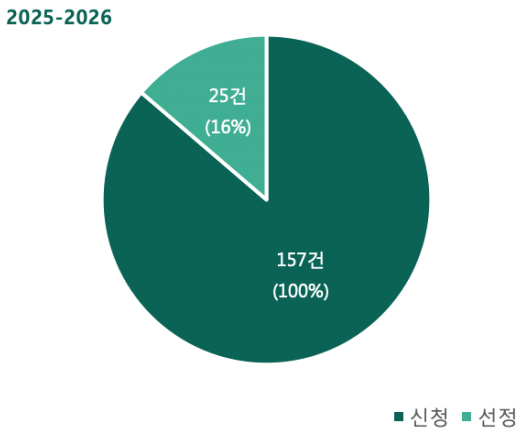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선정 결과(2017-2026)

*단위: 건,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2024			2025-2026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79	18	23	127	24	19	102	27	26	124	27	22	163	27	17	128	27	21	142	21	15	157	25	16

*최초 선정 기준





숫자로 보기(2023-2024, 2025-2026)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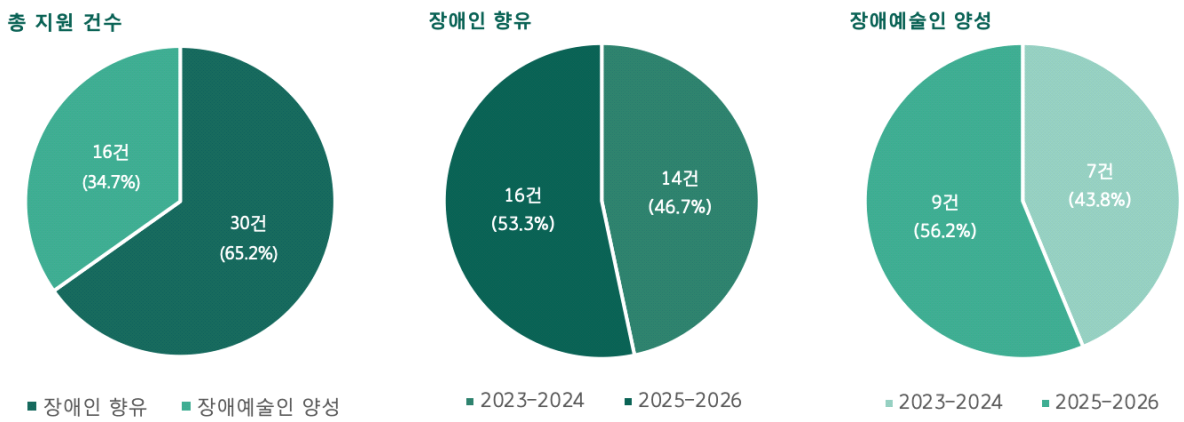
2023-2024년, 2025-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선정 총 46건

장애인 향유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공연·시각·문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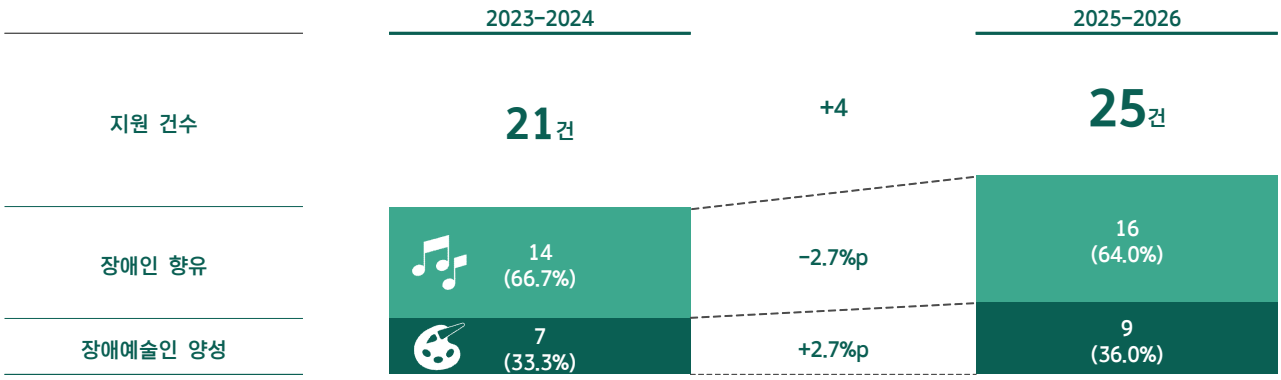
장애예술인 양성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16건**

*단위: 건

연도	지원 건수	장애인 향유	장애예술인 양성
2023-2024	21	14	7
2025-2026	25	16	9
합계	46	30	16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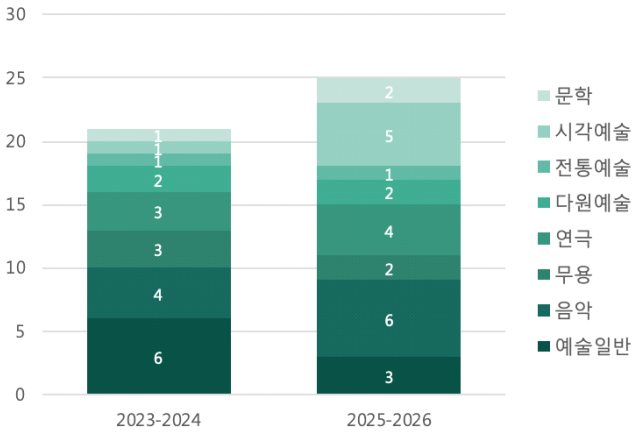


*2회 연속 선정 단체: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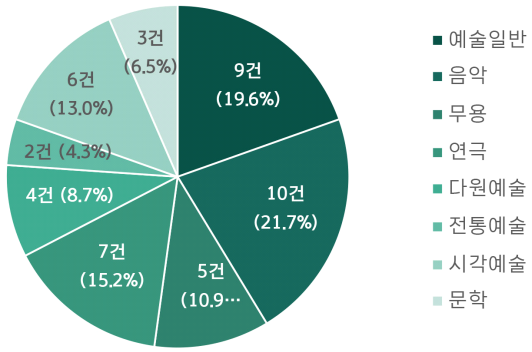
예술장르별

*단위: 건

구분	합계	2023-2024	2025-2026	증감
예술일반	9	6	3	▼3
음악	10	4	6	▲2
무용	5	3	2	▼1
연극	7	3	4	▲1
다원예술	4	2	2	-
전통예술	2	1	1	-
시각예술	6	1	5	▲4
문학	3	1	2	▲1
합계	46	21	25	



장르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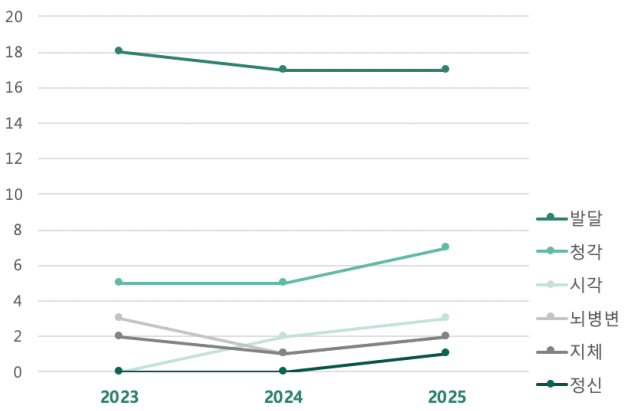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발달	18	17	17
청각	5	5	7
시각	-	2	3
뇌병변	3	1	2
지체	2	1	2
정신	-	-	1

*프로그램별 최종 참여자의 주요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했으며,
전체 지원 건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연도별

2023년에는 장애인 대상의 향유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목적의 교육 운영 비중이 다소 높아지며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025-2026년에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예술 장르와 참여자의 유형이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장르별

포괄적인 영역의 '예술일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각예술 등 **세부 예술장르 중심으로 점차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3-2024년은 예술일반이 6건(28.6%)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음악(4건), 연극(3건), 무용(3건)이었으나, 2025-2026년은 음악이 6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예술(5건), 연극(4건), 예술일반(3건) 순으로 분야별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각예술 장르로 2023-2024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25-2026년 5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 연극, 다원예술, 전통예술 분야는 향유형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등 장르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참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중복 장애, 2개 이상 장애유형 참여 프로그램 포함). 이렇듯 **대다수의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발달장애를 포함해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청각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이 7개, 시각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이 3개로 증가했으며, 정신장애인이 참여한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이 처음 운영되었습니다. 청각·지체·뇌병변·시각장애 참여자는 음악, 연극, 문학, 무용 등의 예술장르와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례공유회를 열기까지

정리 비사이드컬처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이하 교육 사업) 운영 사례 46건을 검토하면서 교육 사업 운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회의는 총 2회 개최되었다. 여러 차례의 공모 심의 과정 참여와 모니터링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검토할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22건)와 연극, 음악, 전통예술, 무용 분야(24건)로 구분해 각 2명, 총 4명을 위촉했다.

전문가 자문위원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
안지언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및 글로벌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연극, 음악, 전통예술, 무용 분야
안경모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연출가
정희정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

진행 과정

1차 회의	서면 검토	2차 회의	원고 청탁	아카이빙·확산
· 운영 방식 논의 · 사례 검토 기준 확정 (7월 9일)	· 분야별 사례 검토 (4주)	· 공유 사례 추천 · 최종 4개 사례 선정 (8월 13일)	· 참여단체: 운영 과정 리뷰 · 전문가: 종합 의견, 사업 개선안 (4주)	· 사례공유회(라운드 테이블, 네트워킹) · 결과자료집 온라인 공유 (10월 12일)

1차 회의

일시 2026.07.09. 목. 10:00~12:00
장소 이음센터 3층 회의실

1차 회의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공유되었다. 단순한 수치성 성과 분석을 넘어, "다른 단체의 운영 사례가 궁금하다"는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초 기획안은 한 달간의 사례 검토를 거쳐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10월 중순에 성과 확산 행사를 개최하는 일정이었다. 첫 시도인 만큼 사례 검토 기준과 행사 규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장문원의 기획 취지를 들은 4명의 위원은 먼저 서류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표했다.

최선영 위원은 우수 사례를 어떻게 뽑을지보다 행사를 어떤 맥락에서 기획할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장문원도 이제 지원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약 '우수 사례'의 형태로 나가면 현장에서 '저런 것을 넣어야 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과 대화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정보만 얻어 가는 행사는 아니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현장에서 계속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서류만 보고 뽑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냥 특이하게만 하려고 하는 팀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유연하게 하는 팀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

정희정 위원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계획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획을 수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성과보고서에 이런 과정을 잘 남겨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문서로는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 *"대부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하지만 현장에서 그만큼 다 하지 못한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다. **한 번 했던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게 비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다른 점**이다. 어떤 연극 단체는 계획서에는 써놨지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수정했고, 수정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고, 그래도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써놨더라. 이번에 장문원에서 해결 과정을 알려주는 사례도 좋다고 하고, 이런 사례를 성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잘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과정 안에서 찾아가는 길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안지언 위원은 "과거에 현장 모니터링을 갔을 때부터 특성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사례 선정 시에도 다른 어떤 예술 교육보다 **참여자의 필요와 요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당사자성을 반영한 방법론 등 정성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 나간 과정은 성장이나 성찰과도 연결되니 성과보고서에 적었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자료는 거의 일반적인 정량 성과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서 현장을 모두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 자료와 올해의 방향에 맞춰 우수 사례를 잘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안경모 위원은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장르도 많은 상황에서 소수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혼선이 생긴다며 "사례마다 볼 수 있는 지점이 다 다를 거다. 오히려 **이 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이 좋았다는 것을 계속 끄집어 올려주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일정하게 1/N로 끊어서 이 단체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다원적인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 시스템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우수 사례를 뽑기보다는 **운영의 유연성 측면이 뛰어나 의미 있는 사례, 참여자 간 관계 맺기가 좋은 사례, 아이디어와 유형에 따라 잘 설계한 프로그램 등 항목별로 구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보는 방법을 제안**했다.

교육 지원사업의 유형별 검토 기준에 대해 안지원 위원은 "향유형은 개인의 성장에 맞춰 변화에 적응하거나 자존감, 표현력이 올랐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 예술인 양성은 예술인으로서 자립이라든지 직업적인 훈련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 차이가 있으니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선영 위원은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은 한두 명의 마스터 같은 비장애인 예술가를 섭외해 확정되어 있는 전문적인 표현 기법을 단순히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참여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류 중심의 단편적인 '우수 사례' 선정보다는, 현장의 노하우가 다음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례'를 논의를 통해 선별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례를 보는 기준

2시간 이상의 논의 끝에 사례 검토 과정에서 우선해서 볼 항목을 정리했다. 특히 기존의 자료를 통해 **교육 참여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했는지, 운영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참여자의 반응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운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전문 예술인 양성의 경우 공통 요소에 더해 일방적으로 기술과 기법을 전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가 예술 표현과 수행 방식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유의해서 보는 것으로 정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2차 회의

일시 2026.08.13. 목. 10:00~12:00
장소 이음센터 3층 회의실

약 한 달 뒤에 열린 2차 회의는 4명의 위원이 각자 검토한 사례 중 눈에 뜨인 사례, 의미 있는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이유를 들어 보고, 행사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사례를 결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공통적으로는 1차 회의에서 정한 기준인 교육 참여자의 주체성을 반영해서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한 단체, 운영 과정에서 대응이 유연한 단체, 해당 분야와 지역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 등 개별 프로그램보다는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폈고,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나누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장애 유형을 고려하고 전문 예술인 양성 분야에서도 1개 사례를 포함했다.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분야

안지언 위원은 지역에서 협업 체계를 잘 이루고 있는 단체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내부적으로 동료끼리 계속 치열하게 연구하며 완성도와 역량을 높여간 단체,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고 살려서 운영한 단체 사례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최선영 위원은 당사자의 반응에 따라 활동을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진행했는지를 주로 살펴봤으며, 그동안 뾰족한 문제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덧붙여 예술교육을 도구화해서 장애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한 사례 등은 현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극, 음악, 전통예술, 무용 분야

안경모 위원은 문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성과보고서에 있는 다양한 링크 등을 통해 과정이나 결과 영상 등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간 과정 중심적인 설계를 요청했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체성을 강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팀들이 보여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2년 차에 심화한 모습을 보인 팀이 있는 반면 답보하는 팀도 있어 아쉬웠고, 여전히 단순 체험에 그치거나 비장애 예술의 수월성에 천착해 장애 예술교육에 그대로 이식하는 사례도 보였다고 전했다. 정희정 위원은 향유형은 대상자 중심으로 문제점, 잘한 점을 다음 차시, 다음 연도에 얼마나 수정하고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특히 다년차 지원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나 강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문 예술인 양성 측면에서는 최종 결과물로 공연이나 전시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경력도 쌓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례를 나누고 싶은 단체

회의 중 가장 많은 얘기가 오갔던 단체는 극단 드라마라운지로 연극이라는 장르 특성에 기반해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극단 드라마라운지는 2025년 선정된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Hunter Heartbeat Method) 도입 사례보다는, 단체 대표를 통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단체를

운영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교육의 체계를 잡아가며 성장해 온 과정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도 다음 해에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등 매년 새로운 질문과 방식을 실험하며 확장하고 있는 0set(제로셋)프로젝트, 충남 홍성 지역에서 전통예술을 매개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발달장애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당사자의 신체성에 집중해 장애예술가들이 전문적인 재료와 도구를 경험하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돕는 선사랑드로잉회, 총 4개 단체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행사에서 사례로 소개하지는 않지만, 회의 중 많은 이야기가 오간 단체로 고성도예예술촌도 있었다.

회의 마지막에 안경모 위원은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장애인 예술교육을 하고 있으니 장문원에서 하는 예술교육이라면 적어도 장애예술에 있어서의 어퍼머티브(affirmative)한 느낌, **독보성과 주체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형태여야 지원 기관으로서 존립성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2차 회의 이후

내부 기획 회의를 거쳐 사례공유회는 최선영 위원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4개 단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자문위원에게는 2번의 회의와 기존의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담은 원고를 의뢰했다. 사례공유회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빠르기로 고군분투해 온 운영단체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4개 단체뿐 아니라 참가자 전체가 서로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기로 했다.

추가로 나누고 싶은... 고성도예예술촌

거의 1:1의 소규모로 밀도 있게 진행한 방식이 좋았다. 어쩌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지원사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수도권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재료나 환경을 갖춘 지역에는 소규모로 해보자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도 과하지 않아서 좋다. 1:1로 하니 당연히 참여자에 따라 유연한 진행이 가능하다. 장애인 예술교육에서 개별성을 고려하는 포맷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완전한 1:1은 어려워도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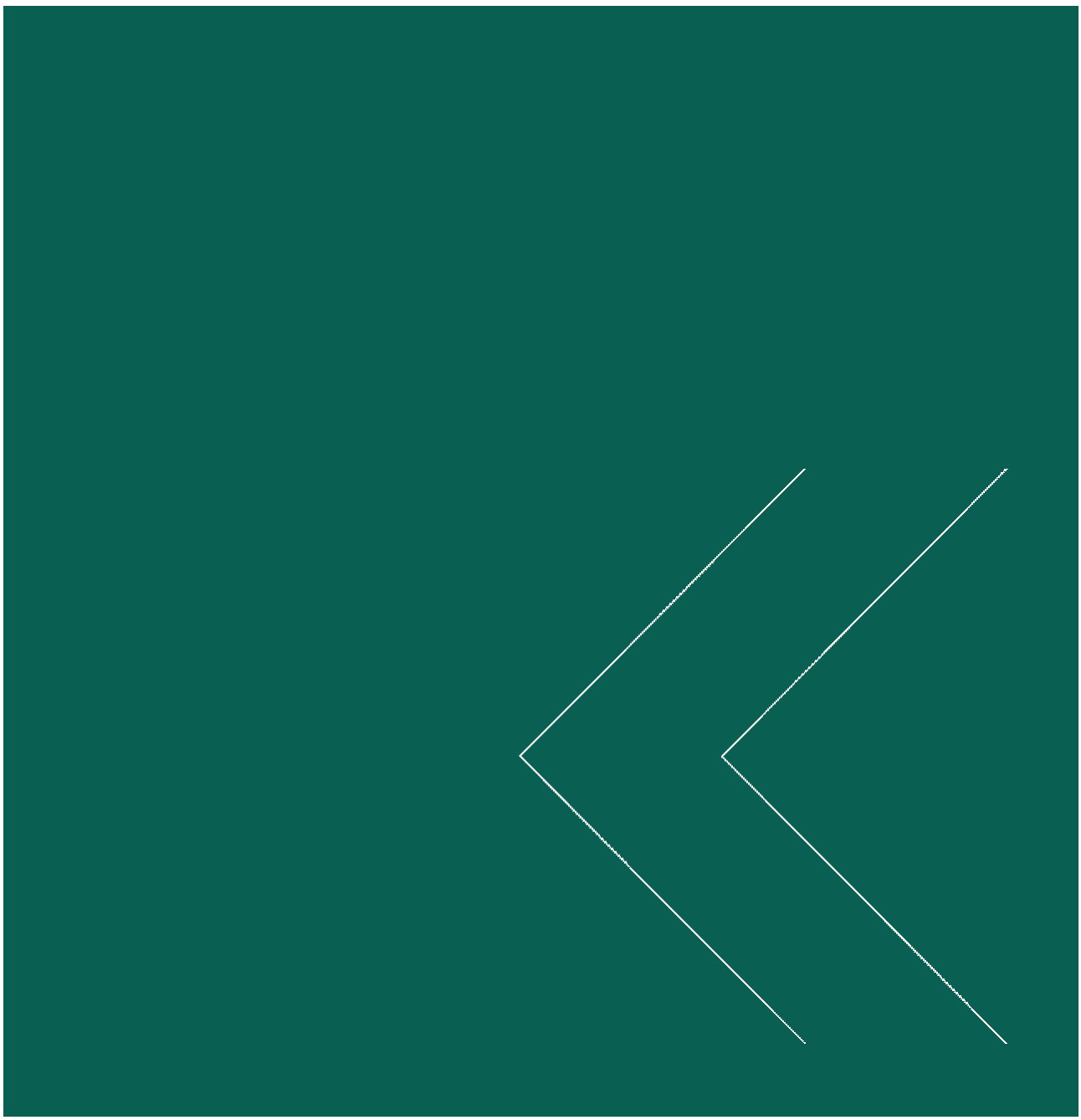
지역에서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아예 1:1로 했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분명 '단체로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사는 시간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힘들었을 것이다. 경남 고성군은 거의 시골이라 접근성도 떨어져 참여자를 데리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장점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큰 가마도 직접 보고 도예 작업도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회차를 진행한 운영진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전하고 싶다. **정희정**

소규모성은 예술교육의 밀도를 올리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재원이 많이 투입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반론에 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다. 음악 교육에서도 합주를 위한 사전 단계에 1:1로 레슨을 한다. 교육의 유연성이라든지 실제 과정 안에서 만들어냈던 내용이 포착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안경모**

공간이나 자원이 좋고 기존에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도예 교육 등을 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 지역사회와 꽤 오래 교류해 온 단체이다. 2025년부터 입주 작가 중심이 돼서 발달장애 청소년과의 만남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그리고 있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가 궁금하다. **안지언**

<<

2. 사례 나누기



0set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연도: 2025 > 분야: 예술일반 >
구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예산: 35,000,000원

0set프로젝트

0set은 전자저울 버튼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이 버튼을 눌러 저울 위에 놓인 물체의 무게를 0(영, zero)으로 세팅한다. 0set프로젝트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를 저울 위에 놓고 다시 사유하고자 2017년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 형식의 팀이다.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활동을 시작했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들로 이어지고 있다.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조사, 인터뷰, 워크숍, 기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 일부를 공연으로 제작한다. 최근 작업으로는 <어서 오세요_2025>, <일+일+일=삶>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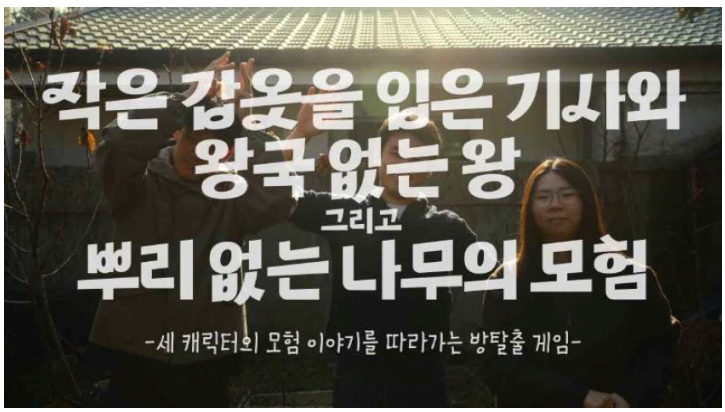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0setproject
페이스북 www.facebook.com/0setproject

자기 설명 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농인 스스로 자신의 언어, 문화,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시간, 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안내자들은 참여자가 스스로 관찰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질문하고 문화예술적으로 가능한 여러 표현 방식을 제안합니다.

참여자: 7명(10대 3명, 30대 4명), 청각장애(농인)
기획 및 운영: 신재(권은영/진행), 염한별(기록), 김은정(진행 보조) 김선미(수어 통역), 김지영(그래픽디자인)
교육 장소: 농인대안학교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야외 공간

	기간	내용
기획	2025.04.01.~05.20. (약 1개월)	주요 참여자 섭외, 전체 프로그램 일정 및 방향 설계
교육	2025.05.27.~12.24. (총 27회)	프로젝트 소개: 기획 의도와 방향 논의 서로 알아가기: 인터뷰 및 참여관찰 주제 찾기와 발표: 자신을 설명할 키워드 정리 및 주제 구체화 개별 리서치와 발표: 인생 그래프 그리기, 공간과 자기 삶 이야기 연결하기 표현 방식 제안, 찾기, 발표: 표현 경험 나누기 발표회 구성: 캐릭터와 자신의 이야기 연결하기, 발표 방식 공유 발표회 리허설: 공연 준비, 피드백
발표회	2025.12.26.~29. (총 6회)	발표회(방탈출 게임) **'작은 갑옷을 입은 기사와 왕국 없는 왕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의 모험'** 장소: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본 게임은 세 캐릭터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모험이자 정가은, 이상일, 송요셉 세 사람의 성장, 변화, 고민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소보사(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에서 세 사람의 언어인 수어로 모험을 떠납니다.

게임은 모두 수어로 진행되지만 수어를 잘 모르는 청인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길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답게 사는 삶

신재 · 0set프로젝트 연출

농인 스스로 자신의 언어,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프로젝트의 시작

처음 농인과 함께 공연을 만든 것은 2020년의 일이다. 농인의 언어와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는 시도를 했던 그 공연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지키며' 살아가는 농인의 삶을 만나게 되었다. 농인으로 자라나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모든 인간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어떤 스승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모국어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이들 주변에서 말한다. 아이들은 기억해 두고, 따라 하고, 되풀이하고, 틀리고, 고치고, 운 좋게 성공하고, 방법을 익혀 다시 시작한다."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중

어떤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자신을 표현할 방식)를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의 주변에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따라 하고 되풀이하고 틀리고 운 좋게 성공하고 그 방법을 익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한국수어를 접하고 배우며 농인으로 자라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청각장애를 가진 채 태어날 경우 대부분 수어로부터 분리된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3일이 되기 전에 난청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인공 와우 수술을 권유받는다.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은 한국어(음성 언어)를 들을 수 없지만 한국수어도 볼 수도 없는, 다시 말해 태어나자마자 언어가 없는 환경에 던져지게 된다. 인공 와우 수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 언어치료를 받는다 해도 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언어를 습득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농인이 수어를 배우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8살 이후이다. 늦으면 13살까지 자신의 욕구,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할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언어 문화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수어를 만나게 된다.
한국 사회는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인(한국어, 음성언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존재해 왔듯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도 이 땅에 함께 살아왔지만 이들의 언어를 정의하고 있는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고 한국수어문법은 2020년에 집필되었다. 한국수어는 법적으로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언어로서 정의 및 정리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여전히 한국수어는 교육, 직업, 문화예술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한국어와 동등하고 독립적인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청인은 한국수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한국수어가 한국의 공용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물론 '손짓 제스처' 또는 '세계 공통어'로 알고 있기도 하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뿐 다른 언어적 특성(동시성, 공간성, 비수지기호(Non-Manual Signals, NMS) 사용, 도상성 등 시각 언어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문법)이 있다. 한국어와 단어, 어순 등 문법 체계도 다른 언어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수어를 하나의 언어이자 문화로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농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농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곁의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할 '문화예술'은 어떤 도구, 과정, 방식이어야 할까.

배움의 방향과 방식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자기 설명 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는 농인으로서 자라났거나 농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농문화와 농정체성 그리고 한국수어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농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자신의 언어, 문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공동체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명하고 표현해야 할 것은 농인(참여자)의 삶 속에 있다.
-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봐줄 사람, 다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을 품고 있는 사람(참여자)과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안내자) 사이의 관계,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면 이 지점일 것이다.
-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말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정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는(신뢰가 생기고 긴장감이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틀(참여자 수, 회차, 결과 발표회)을 프로젝트의 과정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본 프로젝트를 참여자의 삶의 연결선 상에 놓아야 한다는 것, 스스로 배우고 표현하기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누구보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강사'라고 생각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문화예술'을 '대상자'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맞지 않다. 오히려 배워야 할 사람은 '강사'이다. 자신이 '교육'할 장애인이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으며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맞춰서 자신의 기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완성된 틀을 제시해야 '선정'될 수 있고 교부신청 전 1차 수정 이후에는 정해진 계획대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쌍방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강사'가 '대상자'를 알아가는 시간(회차 이전의 시간), '강사'가 장애인을 둘러싼 현실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최초의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설명 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의 경우 시작할 때 사전에 참여자가 모집되어 있었고 참여자와 안내자 간의 관계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회차에 어느 정도 포함해서 다행이었으나, 안내자의 한국 사회에서 농인의 삶에 대한 조사와 공부를 프로젝트 내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몇 가지 책이나 논문을 골라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안내자끼리의 모임을 회차에 포함할 수 없었고 계획하지 않은 일정을 추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한편 본 프로젝트처럼 불특정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 '예술교육'은 일방향으로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어떤 점에서 한국수어,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에 가장 무지한 사람은 '주강사'인 나이다.) 표현과 진행의 주체인 참여자들이 '대상자'로 세팅될 수밖에 없음이 아쉬웠다. 참여자의 삶과 공동체에서 가장 주요한 질문과 본 프로젝트의 질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일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어떤 순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강사와 대상자의 구도가 되는 한계를 느끼곤 한다.
참여자 수, 회차, 결과발표라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틀 역시 우리의 프로젝트를 좀 더 밀도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나 또는 다른 안내자, 통역사 역시도 여러 이유에서 틀에 얽매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좀 더 다양한 틀의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교육'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정형화된 교육, 특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끔 이끄는 일방향적인 교육에 제동을 거는 개념이자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의 종료와 삶의 지속

자신의 삶을 사는 것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농인 참여자들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식을 함께 찾아갔던 경험은 쌍방에게 모두 유의미했다. 발표회는 농인의 이야기를 농인의 언어이자 문화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참여자 중 세 사람의 자기 이야기와 현재 마주한 고민을 한국수어로 만나는 '방탈출 게임 – 참여형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연도인 2026년에는 '자기'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공동체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농인으로서 청인을 만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참여자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농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 및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과 자신의 삶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 자신의 부족과 사회의 부족을 구분해 내는 일을 무던히 해나간다는 일이기도 하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서야 나는 이들의 문화에 한 발 내디딘 느낌이다. 농정체성이라는 거대한 질문이 결국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답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체감한다. 언제나 그렇듯 이때쯤 '사업'은 종료된다. 지금까지의 관계, 배움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연결할 무언가를 또 찾아 나서야 한다. 프로젝트를 계기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0set프로젝트'가 품은 의심

'0set프로젝트'의 활동 '자기 설명 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는 의심의 연속이었다. '0set프로젝트'가 농인에게 교육할 만한 무언가를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선택,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을 다시 질문하고 해체해야 하는지 살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적극적 상호 탐색 및 질문의 자리로 위치되었다. '0set프로젝트'는 이 활동을 '농인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 문화,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시간, 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한다. 자신의 언어,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다만 설명하기 위한 관찰의 거리,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시간 그리고 그 결과를 입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뿐이라고. 그래서 '0set프로젝트'는 참여자를 만나서 서로를 향한 궁금함을 공유했다. 2년 동안 이어진 활동 안에 장르 중심의 표현 활동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술은 '0set프로젝트'의 질문이 넓어지는 자리로서 존재했다.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펼쳐진 이야기 >>>>>>>>>>>>>

·내용을 클릭하시면 원문, 파일, 영상 등으로 연결됩니다.

영상 세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탈출 게임

리뷰 0set프로젝트 〈작은 갑옷을 입은 기사와 왕국 없는 왕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의 모험〉
내 몸 둘 바를 알아가려면. 장기영 공연예술평론가. 웹진 이음. 2026.02.11.

등장 연습 워크숍 <짜잔>
0set프로젝트가 노들장애인야학과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으로 운영한 '등장 연습 워크숍 <짜잔>'은 2024년 외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아르코미술관의 <여기 닿은 노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의 <어떻게 나에게 빨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시 연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월간 짜잔잼'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고 일상으로서의 장애예술교육 매일을 연결하는 일. 신재 연출. 웹진 이음. 2023.05.31.









극단 드라마라운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연도: 2023-2024 > 분야: 연극 >
구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예산: 35,000,000원

극단 드라마라운지
극단 드라마라운지는 2018년 '연극과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라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연극 및 통합예술교육가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어린이, 청소년, 교사, 예술가 교육을 시작으로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관객 참여를 중시하는 어린이·청소년극 제작 및 공연 연계 워크숍을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설렘주의보: 우리가 만난 아주 멋진 '오늘'>
2023-2024 배우의 시작 : 나를 찾아 떠나는 그림책 연극여행
2025-2026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HHM) 연극놀이 셰익스피어의<십이야>

웹사이트 www.dramalounge.co.kr
인스타그램 @dramalounge7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이소희드라마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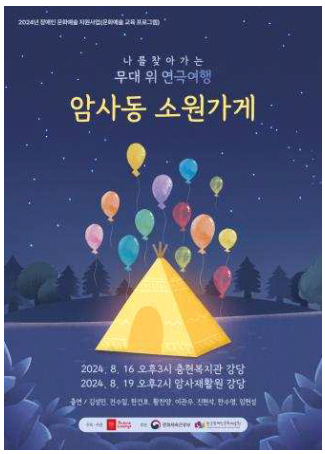
배우의 시작 : 나를 찾아 떠나는 그림책 연극여행

<심장소리>, <치킨마스크>, <색깔손님>, <강물처럼 말해요>와 같은 4권의 그림책을 활용해 자신을 인식, 인정, 수용하고 자존감을 갖도록 합니다. 1단계에는 그림책에서 연극으로 나아가면서 무대 위 배우 경험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극에의 재미,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단계에는 연기에 관심이 있고 배우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1단계 참여자 대상으로 심화반을 운영합니다.

참여자: 2024년 33명(20대,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중복장애), 2024년 26명(10~30대, 발달장애)
사업총괄: 이소희 기획·행정: 명진희 주강사: 김현주, 한지혜, 나수아, 백운철, 보조강사: 이정주, 김현진
교육 장소: 암사재활원, 산본주간장애인보호시설, 충현복지관

	일정	내용
준비	2023.03.~07.	프로그램 구성 회의, 준비 모임, 자문회의, 프로그램 사전검사 등
교육 내용 (1단계)	2023.07.24.~2023.08.24. (암사재활원, 총 12회차, 2개반) 2023.09.13. ~12.06. (산본주간장애인보호시설, 총 12회차, 2개반),	1차 그림책 <심장소리>와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예술여행: 만남 2차. 그림책 <치킨마스크>와 떠나는 두 번째 그림책 예술여행-<#가면극 속 동화 한 페이지> 3차. 그림책 <치킨마스크>와 떠나는 두 번째 그림책 예술여행-<#나를 둘러싼 마스크들> 4차. 그림책 <치킨마스크>와 떠나는 두 번째 그림책 예술여행-연극으로 만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 5차. 그림책 <색깔 손님>과 떠나는 세 번째 예술여행-<#날아든 종이비행기> 6차. 그림책 <색깔 손님>과 떠나는 세 번째 예술여행-<#할머니! 밖으로 나가요!> 7차. 우리들의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8~9차. 함께 만드는 우리의 무대 10차. 발표회 준비 및 리허설 11차. 스케치 영상 관람 및 소감 나누기 12차. 발표회 및 마무리: 그림책 내용 소리로 표현하기 *산본 기준으로 운영 내용은 참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2024.01.~03. 2024.06.~07.	프로그램 개발, 사전 워크숍, 수업 재료 준비 등
교육 내용 및 발표회	2024.04.18.~07.11. (충현복지관, 총 39회(12차시*2개반, 15차시*1개반)	-1단계 프로그램 운영: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1반), 우리의 공연(2반) -발표회: 2024년 7월 4일(공연 시간 50분, 1회 공연)
	2024.07.24.~08.19. (암사재활원, 총 15회(주 3회*1개반)),	-2단계 프로그램: <배우의 시작:나를 찾아 떠나는 무대 위 연극여행> 심화반 (2023년 암사재활원 프로그램 참여자 8명 선발, 기초 연기 수업) -파일럿 공연 <암사동 소원가게>: 2024년 8월 16일, 19일(공연 시간 30분, 2회 공연) *1단계 프로그램 충현복지관 참여자 등 초대





남길 이야기

예술을 경험하고 타인과 마주하는 즐거움

이소희 · 극단 드라마라운지 대표

교육 사업 참여 이유

장애 어린이와의 첫 만남

2004년 'English Drama Class'에 우연히 지적장애 어린이가 참여하면서 장애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기적처럼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표현하도록 도왔고, "연극이 장애 어린이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깊은 체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Start where the children are)"라는 피터 슬레이드(Peter Slade)의 말처럼, 눈높이에 맞춘 수업이 주는 자신감, 한 공간에서 함께 하되 개별적 반응을 존중하는 수업 방식, 그리고 '놀이'가 주는 재미와 정서적 안정감은 지속해서 예술교육을 이어가게 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무대를 넘어, '연극을 통한 교육'으로

'연극'에 대한 흔한 선입견 중 하나는 연극을 곧 '배우의 연기'나 '완성된 공연'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단기간 내에 '반드시 무대에 공연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부 부담을 주곤 하며, 이는 참여자와 예술교육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드라마라운지는 2021년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설렘주의보: 우리가 만난 아주 멋진 '오늘'>에 선정되며 암사재활원과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극을 매개로 한 교육적 가능성을 깊이 확인하였고, 이후 '이야기와 극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2023-2024 배우의 시작: 나를 찾아 떠나는 그림책 연극여행

2개년 사업이었기에 한층 깊이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연극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먼 미래에 배우를 꿈꾸어 보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스스로를 알아가며 소중히 여기는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무대 위 연기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로 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를 풀기 위해 선택한 매체가 바로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림책은 시각적 자극과 이야기가 결합하여 자신을 견주어 표현하기에 훌륭한 매개입니다. 단순하고 감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차 자존감을 불어넣고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도서들로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강사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구성 과정에서는 김현주

강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덕분에 참여 기관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암사재활원 1년 차에는 과정 중심의 탐색을, 2년 차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발표로 이어지는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충현복지관에 가서 방문 공연을 한 것이 자존감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충현복지관(2년 차 신규) 20~30대 청년층으로 발화 및 에너지가 높아, 1년 차임에도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발표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안을 중심에 두고 당사자의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교육 과정 중 의미 있던 순간과 새로운 발견

마음을 열어가는 아이들의 드라마틱한 변화

암사재활원 친구들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만났는데 이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1) 책상 밑에서 건넨 편지 첫해 수업 시간 내내 책상 밑에서 나오지 않던 친구가, 이제는 수업 30분 전에 뛰어와 강사진에게 안부를 묻고 수업 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 편지를 건넵니다.
2)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 관우 연습 때에는 장난치고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던 관우가, 공연장에서는 진행 스태프처럼 아이들의 퇴장 순서에 맞춰 큐사인을 주고 조연출처럼 움직이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모든 과정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3) 외부 공연이 준 성취감 거주기관 친구들이라 외부에 나가 공연하거나 타 기관 친구를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외부 무대에서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공연 후에도 어디서나 공연했던 노래와 율동을 신나게 즐겼다고 합니다.
4) 깊은 속마음을 나눈 시간 수업 중 그림책과 연극 요소를 접하며 언어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과 깊은 속마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사진이 얻은 통찰

1) 세심한 관찰 표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에, 참여자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환대'와 '안전망'이 만드는 자기표현 "반가워", "오늘 기분이 어때?" 같은 환대를 통해 인정받고 있음을 체감하면, "이 선생님들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신뢰가 쌓여 자발적인 표현이 싹틉니다.
3) 그림책과 연극의 거울 효과 그림책의 상황을 강사들이 연기로 보여주면, 참여자들은 상황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그 인물에 자신을 입혀 깊은 속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4) 결과보다 과정, 오랜 만남의 힘 매 수업 참여자들과 속도를 맞추고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변화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운영 시 어려움과 시행착오

사전 협의를 거치더라도 기관의 갑작스러운 행사나 담당자 교체로 교육 이해도가 낮아지는

변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활동 전에는 참여자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된 진도에 연연하기보다 참여자의 수행 정도에 따라 계획 안에서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업의 질과 안전한 참여를 위해 강사 투입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부터 드라마라운지의 모든 장애예술교육은 강사와 참여자 비율을 1:2~1:3 정도로 배정하여 휠체어 이동, 돌발 행동 등에 밀착 대응했습니다.
다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투입을 늘릴수록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강사 개개인의 높은 헌신에 비례하는 강사비를 충분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아쉬움이 늘 존재했습니다.(2025-2026년 선정된 '헌터하트비트 메소드(Hunter Heartbeat Method, HHM)' 수업의 경우, 1:1로 강사진을 배정하기 위해 청주대 실습센터와 연계하여 2명의 학생을 강사로 투입했습니다)

다른 교육 단체와 공유하고 싶은 질문

지원사업 종료 후의 지속성

예술 단체의 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교육의 연속성이 결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 만남을 넘어, 기관과 예술 단체가 상생하며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있을까요?

'예술 향유'와 '예술가 성장'의 가치 재조명

장애청소년·청년이 교육을 통해 '장애예술가'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놓는 것도 의미 있지만, "모든 예술 경험이 반드시 전문 예술가 양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관계란 '나'나 '너'라는 개별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가 마주하는 '그 사이(Das Zwischen)'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둔 채 섬처럼 존재하기 쉬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연극을 통해 타인과 눈을 맞추고 온전히 만나는 '예술 향유'의 경험은 그 자체로 '관계의 사이'를 만들어내는 결실을 맺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을 '배우의 시작'이라 부른 이유 역시 그들을 당장 무대 위 전문 연기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이자 예술 향유자로서 첫발을 내딛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술을 경험하고 타인과 마주하는 즐거움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고, 전문 예술가의 길은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시선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극단 드라마라운지의 예술교육 사례가 매력적인 이유는, 해를 거듭하며 예술교육의 설계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2023년 그림책을 통한 연극 중심 통합예술교육은 구성이 다소 병렬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연극 활동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점과 미술 활동과 역할 접근 방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24년에는 심화반 운영과 함께 프로그램 체계가 균형을 갖추었으며, 변형 드라마로서의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어 2025년에는 HHM을 수용하며 새롭게 교육설계를 전환했다. 이들의 교육성과는 단순히 해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자와 참여자의 밀착된 관계,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 기회균등과 응원 및 활동의 기다림, 결과적으로 공동의 수행과 결과의 공유가 비위계적이고 포용적인 예술교육의 기반을 만든 것에 있다.

안경모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연출가

펼쳐진 이야기 >>>>>>>>>>>>>

·내용을 클릭하시면 원문, 파일, 영상 등으로 연결됩니다.

영상 2023년 [배우의 시작-나를 찾아가는 그림책 연극여행]

보도자료 극단 드라마라운지 '나를 찾아가는 무대 위 연극여행' 개최. 2024.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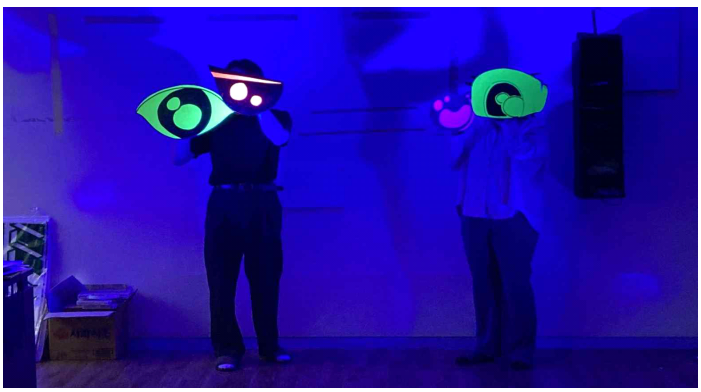
영상 2025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를 활용한 연극놀이 <십이야>











선사랑드로잉회

서로 다른 몸이 만드는 예술

연도: 2025 > 분야: 예술일반 >
구분: 전문 장애예술인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예산: 30,000,000원



선사랑드로잉회
선사랑드로잉회는 2000년 6월 장애 예술가를 주축으로 장애 미술가의 인체드로잉 접근성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기초 미술 교육을 통해 장애 예술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현재 장애 정체성을 바탕으로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sunsarang.drawing

우리 몸 크로키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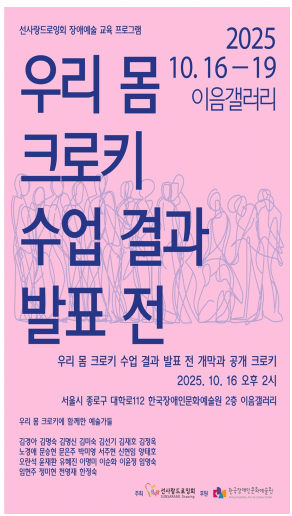
현대 무용의 방법론으로 자신의 몸을 예술적 주체로 인식해서 몸을 움직이고 창작의 회화 창작의 개념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22명(50~70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주강사: 노경애, 보조강사: 김명신, 천영재
교육 장소: 모두스튜디오, 이음홀

	기간	내용
준비	2025.02.28.~04.23.	교육 장소 대관 교육 비품 준비 재료 준비, 교육생 모집 교육 준비 연구, 교육 홍보
교육	2025.04.17.~08.13. (총 12회차, 36시간)	**우리 몸 크로키 수업 진행** 우리 몸 바라보기와 움직이기, 그리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된 움직임, 움직임의 연결. 키워드 그림으로 움직이기에 대한 생각 나누고 움직임 만들기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몸 사이 공간들 여러 움직임으로 그리기 바닥에서 움직이고 그리기 몸 모양 맞추기 등
	2025.09.18.~10.14.	결과 발표전 준비, 전시 홍보
발표회	2025.10.16.~19. (총 1회)	우리 몸 크로키 수업 결과 발표전(이음갤러리) 우리 몸 크로키 현장 크로키
평가	2025.11.30.	교육 진행 평가 회의 2차 연도 교육계획







남길 이야기

그림은 움직임이 되고 움직임은 관계가 되다

문승현 · 선사랑드로잉회 대표, 미술작가

교육의 의도와 바탕

선사랑드로잉회의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은 장애인 미술가가 바라보이는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기 몸을 창작의 주체로 되돌려 놓는 데서 시작한 다원예술교육이다. 또한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던 그림의 언어를 몸의 움직임과 공간으로 넓혀 보고자 했다. 2025년 1차 연도에는 현대무용의 방법을 통해 자기 몸을 감각하고 이를 드로잉으로 옮기는 데 집중했으며, 2026년 2차 연도 '우리 몸 크로키 수업-움직임 그림'에서는 각자의 그림과 몸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공동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 교육은 오랫동안 누드 크로키를 함께해 온 장애인 미술가 사이에서 생겨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고전적인 인체 비례와 '완전한 몸'을 기준으로 비장애인 모델을 그려 온 익숙한 방식으로는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작가 자신의 생동감과 긴장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장애인 미술가에게 자기 몸은 그림의 바깥에 있는 몸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새로운 선과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인가.
몸은 혼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과 만나며 다른 몸과 관계를 맺는다. 서로 다른 몸은 하나처럼 같아지지 않으며, 각자의 차이와 경계를 지닌 채 서로에게 닿는다. 따라서 몸의 차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몸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철학자 장 뤽 낭시(Jean-Luc Nancy)가 몸을 바라보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 수업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

참여자는 스스로 모델이자 관찰자가 되어 자기 몸에서 새로운 선과 움직임을 찾아갔다. 몸의 비대칭과 기울기, 흔들림, 서로 다른 움직임의 속도, 휠체어가 지나가며 만드는 궤적은 고쳐야 할 결핍이 아니라 각자의 창작 재료가 되었다. 1차 연도가 자기 몸의 감각을 선과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면, 2차 연도는 그 선과 움직임을 다른 사람의 몸과 공간으로 넓혀 서로 다른 몸이 함께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교육 내용과 공동 창작 과정

2025년 교육은 자기 몸을 느끼고 이를 움직임과 그림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몸과 몸 사이의 거리와 접촉, 바닥과 몸의 관계를 살피며 움직임을 선으로 옮기고, 반대로 그림 속의 선과 형태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냈다. 붓질의 빠르기와 힘은 움직임의 속도와 느낌으로 이어졌으며, 넓은 바닥 위에서 물감과 도구, 몸이 직접 맞부딪히며 흔적을 남긴 '움직임 그림'은 완성된 그림뿐 아니라 온몸으로 그리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살아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차 연도에는 '2차원 평면 그림'과 '3차원 극장 공연'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점,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곡선은 그림의 선을 공간과 몸의 움직임으로 옮겨 보는 바탕이 되었다.

공연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몸, 키가 큰 몸과 작은 몸, 기울어지고 흔들리는 몸 등 서로 다른 몸을 하나의 독립된 '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점은 수평선을 걷거나 휠체어로 가로지르고, 수직으로 몸을 세우거나 그 축을 흔들며 각자의 균형을 찾아갔다. 이어 대각선의 방향과 힘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직선은 굽어지고 곡선으로 바뀌었다. 평면 위에 있던 선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멈추고 흔들리는 몸의 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무가는 정해진 동작을 가르치기보다 참여자가 자기 몸에서 움직임을 직접 찾아내도록 했다.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동작이 다른 몸을 거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달라졌다. 이를 잘못된 모방으로 보지 않고 '닮음과 다름'이 함께 생겨나는 창작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휠체어 또한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니라 몸과 함께 움직이며 속도와 방향, 회전을 바꾸고 새로운 선을 그리는 '확장된 몸'으로 바라보았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2025년부터 참여자가 서로의 몸을 관찰하며 그린 크로키를 극장 공간에 투사했다. '그리는 몸'과 '그려진 몸', 과거의 몸과 지금의 몸, 실제 움직임과 그림 속 이미지가 한 공간에서 겹쳐졌다. 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림에서 다시 움직임을 찾고, 그 움직임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온 2년의 시간이 하나의 공연으로 만나는 장면이었다.

기여와 가능성

이 교육의 첫 번째 의미는 장애인 미술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이는 몸에서 벗어나 자기 몸을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비대칭과 흔들림, 움직임의 차이는 감추거나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움직임과 공간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림과 공연이 서로 만나는 방법을 직접 찾아보았다는 점이다. 선의 방향은 몸이 움직이는 길이 되고, 붓질의 강약은 몸의 긴장과 이완으로 이어졌으며, 캔버스의 구도와 여백은 몸과 몸 사이의 거리와 공간으로 옮겨졌다. 그림을 그리며 익혀 온 감각이 몸과 공연에서도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몸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창작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같은 동작을 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몸을 거치면 저마다 다른 움직임이 된다. 한 사람의 몸이 그어낸 선이 다른 몸의 움직임과 만나 또 다른 장면을 만들어내듯,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지닌 채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과정이었다.

2년에 걸친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누구의 몸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는가.
참여자는 자기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으로 기록했다. 그 선은 움직임이 되었고, 움직임은 다른 몸과 만나 공간과 관계를 만들었다. '완전한 몸'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몸은 각자의 고유함을 잃지 않은 채 서로에게 닿는다. 그 닿음 속에서 그림은 움직임이 되고, 움직임은 관계가 되며,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장면으로 피어난다.

선사랑드로잉회는 오랫동안 누드 크로키를 공동으로 해온 장애 미술가 단체로 "우리는 왜 늘 비장애인 모델의 몸을 그려왔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오랜 시간 품어왔고, 그 답을 외부가 아닌 자신들의 몸에서 찾아냈다. 참여자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보는 발상은 단순한 소재의 전환이 아니라, 관찰자로만 머물던 장애 미술가를 창작의 주체로 전위시키는 구조적 전환이었다. 몸의 비대칭, 휠체어의 곡선을 결핍이 아닌 고유한 드로잉의 선(線)과 긴장감으로 재해석해 낸 성과는,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정교하게 예술적 수월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현대무용의 방법론과 회화를 결합해, 몸을 '바라보기'에서 '중력'으로, 다시 '사이'와 '해프닝'으로 점층적으로 심화시키는 설계의 정교함을 보여주었다. 회차별 교육 일지에 기록된 참여자의 반응 "타인의 손과 나의 몸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되었다",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 같았다"는 이 교육이 기능 습득을 넘어 존재론적 경험으로까지 심화했음을 보여준다. 매 회차 전반부의 움직임 워크숍과 후반부의 크로키가 서로를 모델 삼아 순환하는 구조는, 참여자 간 '동료성'이 창작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안지언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및 글로벌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펼쳐진 이야기 >>>>>>>>>>>>>

·내용을 클릭하시면 원문, 파일, 영상 등으로 연결됩니다.

리뷰 [전시]우리 몸 크로키 수업결과 발표전. 이음리뷰클럽: 임현주. 웹진 이음. 2025.11.19.

기고 문은주(미술작가)
경계 없는 세계를 유영하기 ① 나비의 날개 끝에서 피어나는 순간. 웹진 이음. 2025.07.30.
경계 없는 세계에서 유영하기 ② '우리 몸 크로키'와 함께한 해방의 순간들. 웹진 이음. 2025.08.20.

영상 2026 모두미술공간 <관계의 기술: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전시 기록 영상

공연 2026년 사업 결과발표회 <우리 몸 크로키 수업-움직임 그림> 모두예술극장. 2026.07.17.





2. 사례 나누기


Artists' Drawing Pastels


우리 몸
크로키 수업
움직임
그
림
모두예술극장
2026년 7월 12일
금요일 16시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예술로 오래오래 만나기

연도: 2025 > 분야: 전통 >
구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예산: 33,000,000원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국가무형유산 강령탈춤을 근간으로 공연·교육·체험 등을 통해 전통연희를 알립니다. 우리 문화가 가지는 신명과 흥겨움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공연을 추구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블로그 blog.naver.com/chunji_in
인스타그램 @urimunhwa_kkun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우리문화연희단꾼

예술로 오래오래 만나기 프로젝트 '탈 쓰고 추는 춤'

국가무형유산 '강령탈춤'을 기반으로 탈춤이 가지는 과장별 춤, 재담, 연기, 악기 등을 재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것을 해체시키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정립해 예술교육을 합니다. '악기팀'과 '걷기팀'으로 나누어 악기팀은 길놀이 장단을, 걷기팀은 실내와 자연 속에서 수차례 걸으며 강령탈춤 탈춤체조와 몸짓을 연습합니다.

참여자: 22명(20~30대, 발달장애, 중복장애)
주강사: 조영석(소리, 풍물악기), 김영란(풍물악기, 신디), 임현성(탈춤)
특강강사: 이혜경(미얄할미춤), 송연서(용산삼개집), 오현범(장구), 장지성(꽹과리), 김소엽(태평소, 피리),
교육 장소: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문화공간 예술쉼터 들돌, 홍성군 어울림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다목적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회관 2층

	일정	내용
준비	2025.04.14.~05.12.	기획 회의, 참여자 모집 등
교육 진행	2025.05.19.~09.25 (총 32회차, 특강 2회, 공연·전시 포함)	**무용팀** 라포 형성, 마을길 걷기, 탈과 친해지는 시간, 탈 만들기, 장단 익히기, 사물악기 배우기, 탈춤 기본 동작 익히기, 미얄영감할미 과장 경험, 사자춤 배우기, 전통놀이 경험, 응용 동작 배우기, 팔목중 놀이·아리랑 공연 준비하기, 전시 참여하기 등 **악사팀** 사물악기 맛보기, 탈 만들기, 사물악기 장단 연습(타령, 변가락, 자진굿거리, 할미 장단, 염불장단 등), 사자춤 연습하기(입장춤, 외발뛰기, 좌우뛰기, 뒷걸음질 등) 상좌춤 경험하기(호흡법 알아가기, 기본 동작 익히기), 미얄영감할미춤 배우기, 공연 준비하기, 전시 참여하기 등
발표	공연 2025.09.02. 전시 2025.09.23.~24.	공연: 홍주문화회관 공연장. 공연 시간 50분 지인, 가족, 유관기관 담당자 초대 전시: 홍주문화회관 2층 전시실. 2일.
기획회의	2025.09.30	성과보고, 교재 제작 논의





남길 이야기

‘잘한다’보다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조영석 ·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대표

교육 사업 참여 이유

2021년 3월,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회장과의 통화로 시작된 인연이 길놀이, 농요, 마당극, 탈춤으로 이어지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을 채웠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한 뒤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고 마땅한 낮 활동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찾기 힘든 성인 발달장애인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해서, 여행하듯 부담 없이 만나보자"고 손을 내민 것이 출발점이었다.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이하 꾼)은 그동안 전 생애에 걸쳐 전통예술을 보급해 왔지만,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발걸음을 이어온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전통예술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지속 및 확장' 때문이다. 장애예술 교육이 일회적이고, 단기 소비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며 꾼과 지역사회에서 만나 "춤출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일상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만나며 공연무대에 강점을 보이고 연희자와 공연자로서의 욕구가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예술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과 만나는 접점이 탈춤이었다. 꾸밈없는 참여자의 춤에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발견하고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경계 없이 함께 놀고 춤추는 소통을 중시했다. 대사·소리·악기·몸짓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강령탈춤'을 통해 개별적 강점을 발견하고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교육 과정 중 좋은 기억, 의미 있던 순간, 새로운 발견

공동체 성장_공동의 경험

팀의 일원

충남 홍성 지역사회(홍성역)에서 길놀이를 하고, 지역문화공원에서 농요를 하고, 지역 공연장에서 마당극을 했다. 이야기꾼으로, 악사로, 무용수로, 배우와 스태프로 무대를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기 표현(창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22명의 힘을 발견했고, 강령탈춤 7과장 미얄영감할미 과장을 하나의 극으로 각색한 40분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공연복과 소품을 챙기고 대기실에서 수다를 나누며 긴장한 모습... 배우고 익히고 표현한 것을 무대에서 쏟아낸 순간을 기억한다.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동, 도전을 선물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참여자 22명,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공연에 임했던 공동의 경험은 참여자와 강사, 지원인 등 공동체가 화합하며 똘똘 뭉치게 했다. 평가회에서 눈물을 쏟으며 비언어적으로 표현했던 교육생과 가족들의 감정 표현을 보면 그동안 함께 연습하고 노력한 것이 모두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성장

예술노트

2025년 1년 차의 교육과 전시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참여자가 교육 이후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생각을 기록하는 '개별 예술노트' 만들기에 도전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을 차곡차곡 담아내며 예술노트가 참여자의 애착 물건이 되는 과정을 보았다, 예술교육이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다.

지역 예술가

참여자 중 1명은 예술적 재능(피아노 연주, 연기, 즉흥대사)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홍성 청년들의 삶을 다룬 연극에 배우로 참여하여 새로운 공연 경험을 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고 뒤풀이를 하며 공연이 일상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연에 서는 무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강사들의 성찰과 원칙의 발견

교육을 거듭하며 강사진이 깨달은 가장 큰 발견은 "강사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고생할수록 참여자가 빛난다"는 점이었다. 참여자의 단점을 말하지 않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말을 빨리하거나 강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 등 다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원칙을 공유했다. 지시와 복종이 아닌 '서로를 기다려주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었다.

운영 시 어려움과 시행착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은연중 빠지게 되는 '제공자 중심의 함정'이었다. 겉으로는 참여자가 주체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강사가 원하는 결과물이나 멋진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애쓰는 것이 그렇다.

개별 욕구와 지원의 조율

성인 발달장애인 참여자 22명의 성향, 속도, 도전적 행동 양상, 관심사가 모두 달랐다.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전통예술인 강령탈춤의 맛을 살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강사, 보조강사 외에도 옹호지원교사(키워커)를 1:1~1:3 비율로 촘촘히 지원하고, 수업 중간중간 환기와 릴렉스를 위한 '리프레시 타임'을 도입해 긴장감을 낮추고 안정감을 찾도록 도왔다. 무엇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라는 무한한 지지를 통해 참여자 당사자보다는 지원인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관계의 경계(존중)

다년 동안 깊어진 친밀함 속에서 자칫 생길 수 있는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동료 예술가로 대우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강사들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옹호지원가에게 예술 활동이 수행적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고, 공연에서 ‘잘한다’는 관점보다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시되도록 했다.

공연 소도구의 활용

‘탈 쓰고 추는 춤’ 전통연희와 탈춤을 표현하기 위해 참여자의 강점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탈, 깃발, 의상, 소품, 무대 오브제, 악기 등을 활용했다. 또한 참여자와 소도구의 적합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선호하는 것' 중심으로 회기마다 참여자를 관찰과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물어보고 소통했다.

교육과 공연의 놀이화

교육이 훈련이 되지 않고 놀이가 될 수 있도록 공연 이야기와 배역에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을 적용했고, 참여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오디션을 진행했다. 오디션 연습 과정을 중시했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활용해 미리 교육생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에 앞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무대 지원자를 배치해 공연 진행의 이해를 도왔다.

다른 교육 단체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질문들

장애예술교육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나누고 싶은 지점은 "우리끼리만 즐거운 예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이다.

결과 발표의 확장

매년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과 지역기관에서 지역 주민, 가족, 유관기관을 초대해 공연과 전시, 그리고 성과공유회를 열어왔다. 장애예술이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당당한 지역 문화의 한 축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록형 교재의 필요성

장애예술 관련 정보나 전통예술 이론은 많지만, 일선 현장에서 발달장애인과 바로 부딪히며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이나 공유할 수 있는 교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리 단체가 쌓아온 5년간의 암묵지와 노하우를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건물 밖의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발달장애인은 더욱 성장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강령탈춤**

강령탈춤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탕으로 소리와 재담, 춤으로 자신의 최고의 기량과 묘기를 봄내는 것은 물론 복과 염원을 빌어 자신과 가족, 나아가 마을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평화와 무사를 기원하는 것이며 또한 선조의 염원이 담긴 춤이다. 황해도 강령 지역에 전승되는 전체 7과장의 해서탈춤으로, 전쟁 이후 월남한 연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60년대부터 복원했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되었다.

'꾼'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꾼이 '장애인을 위한 예술'보다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술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획자는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고민과 경험을 통해 참여자와 지역의 장애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강령탈춤의 예술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접근 방식을 찾아가는 섬세한 수업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참여자에 대한 열정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 네트워크를 함께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좋은 사례입니다.

정희정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

펼쳐진 이야기 >>>>>>>>>>>>>

·내용을 클릭하시면 원문, 파일, 영상 등으로 연결됩니다.

후기 2025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첫 번째 발표회: 2025년 9월 2일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후기 2026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두 번째 발표회: 2026년 7월 28일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행사 탈 쓰고 추는 춤 예술노트 출판 기념회 2026년 9월 9일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발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쉬운 교재 탈 쓰고 추는 춤>. 202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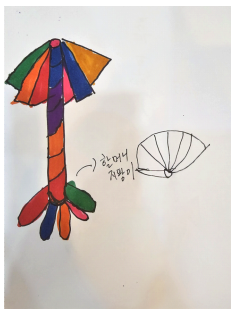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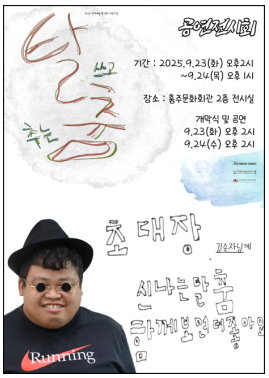











공연전시회
탈 쓰고 추는 춤
기간 : 2025.9.23(화) 오후2시
~9.24(목) 오후 1시
장소 : 홍주문화회관 2층 전시실
개막식 및 공연
9.23(화) 오후 2시
9.24(수) 오후 2시
초대장
김승재님께
신나는 한 판
즐거웠던 멋진 날
Ru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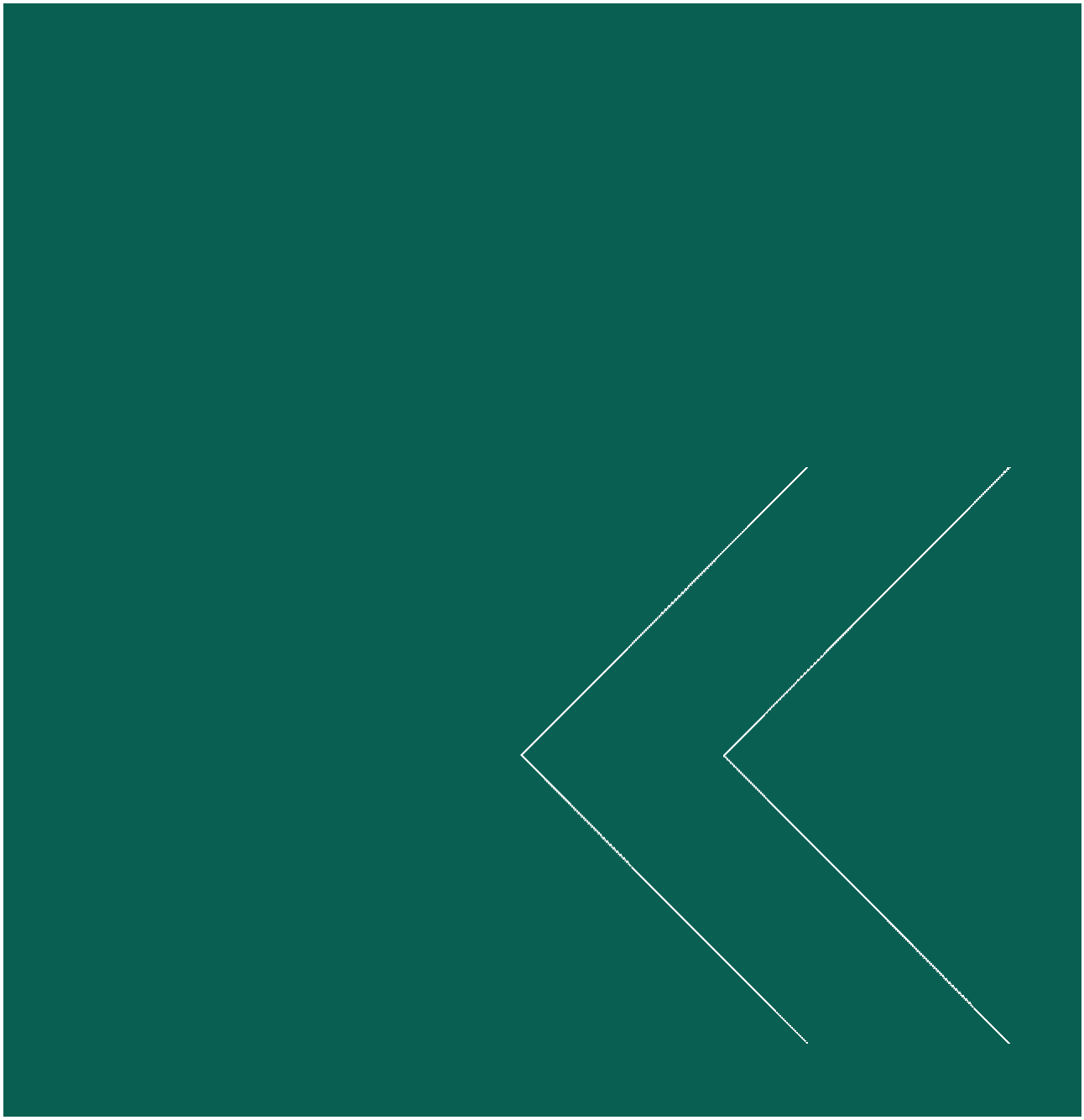

환영합니다
초대장
올림 전시회태
전시
01 A3_얼굴 탈
02 A4_공연 탈
03 A4_교육 탈
04 A4_프레 탈
05 5~7_호대 탈
06 A1_단체 탈
공연
발목줄놀이
미얄영감 ★ 할미춤
4년째 풍물


2026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탈 쓰고
추는 춤
예술노트 출판 기념회
우리문화전연연회단체 곤
X
홍성군 어울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2026년 9월 9일 (수) 14시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은현3길 39)


2026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탈쓰고추는춤
미얄영감
할미
두 번째 이야기
영감
내가 왔시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14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3. 의견 나누기



예술을 의심하며 질문을 발명하기

설득보다 먼저 필요한 질문

나는 여러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와 이번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의 사례 검토 회의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술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과 그것들 간의 큰 차이다. 참여자의 개별화된 반응을 (기존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문제행동, 과잉행동의 일부로 볼 것인가 혹은 낯설고도 고유한 자기표현으로 볼 것인가. 예술교육가의 역할이나 위치를 교수자로 설정할 것인가 혹은 협업자나 매개자에 가깝게 전제할 것인가. 참여자에게 무엇을 교육할지 명확하고 자세하게 계획할 것인가 혹은 활동의 변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전제할 것인가. 그 외에도 질문의 범위와 내용은 다양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고도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나 사례를 두고 관계자들이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에서 아무리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정도는' 문제행동 아니냐, 어떤 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등의 논쟁도 이어진다.

의심이 필요한 예술

그런데 이러한 논의 사이에서 모호함 그 자체로 요동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술'이다. 장애·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비장애인의 신체와 감각 중심으로 이어져 온 예술의 개념과 형태가 큰 변화 없이 장애인에게'도' 전달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결국 기존에 있던 장르 중심의 표현 기법을 장애인에게 가르치며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장애인의 참여 기회 확대만을 차별성이자 성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그림 그리기, 공예품 만들기, 연극하기, 뮤지컬하기, 악기 연주하기, 합창하기, 춤추기, 글쓰기 등 몇 가지 형식만이 예술교육 현장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술을 참여자 입장에서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교육가에게 당연하거나 익숙했던 예술을 의심해야 한다. 본인이 배우고 경험한 개념이나 방법론은 계속 변하는 예술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의심. 그런 의심이 없을 때, 예술교육가는 자신이 전공하거나 학습한 예술 위에 장애인을 향하는 '선한 의도'를 얹어 매우 일방적인 예술교육을 시도하게 된다.

장애인 예술교육에 대한 오해에 부쳐

장애인 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선정 조건에 대한 오해'다. 프로그램이 독특하고 예술교육가의 경력이 화려하고 여러 장르를 결합해 장애인에게 종합선물세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그래야 선정된다는 오해. 여러 지원사업을 심의하거나 현장을 가보면 (특히 단체 입장에서 지원사업 선정이나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0set프로젝트'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그것은 참여자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 궁금함, 그것을 바탕에 둔 자기 질문이다. 결국 얼마나 특이한 것을 많이 할지보다 왜 그것을 그 사람들과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그 질문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부터 넉넉히 갖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예술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해서'라는 말은 질문도 이유도 되지 못한다. 그것은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해석되며, 그래서 무관심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커지는 이유는 그것을 되돌아보거나 의심하는 자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지원사업 운영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사례공유회를 기획했다. 가장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공공기관도 현장의 관심이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역시 장애인 예술교육의 일반적 사례, 그 바탕에 깔린 예술에 대해 치열하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누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 이전에 그것이 시작된 개개인의 지난한 질문하기가 각기 다른 관점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하는 설득의 언어도 발명해 낼 것이다.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
2007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개별성 중심의 활동을 기획, 연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기획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아르떼365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장애인 예술교육 강의 노트 <같이 좀 모르자>를 집필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실험이 알려지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흐름 위에서, 이번 사례 검토와 그간의 심의·현장 평가 경험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초기의 교육 지원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포용성에 방점이 있었다면, 최근의 사례들은 포용성을 전제로 하되 예술의 예술성과 수월성, 참여자 개개인의 개별성, 그리고 함께 작업하는 이들 사이의 동료성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의 방향을 밀도 있게 보여준 사례가 선사랑드로잉회의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이었다. 선사랑드로잉회의 '우리 몸 크로키 수업'이 남다른 이유는, 질문 자체가 스스로에게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필자가 직접 모니터링한 극단 드라마라운지와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역시 다른 결의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극단 드라마라운지는 대표가 참여자들과 만나고 싶어 했던 오래된 염원과 진심이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어, 교육의 성패를 기술이나 성과물보다 앞서 '관계를 향한 진정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은 한 사람의 삶과 생애를 예술로 만나는 그 찰나성과 지속성을 함께 붙들어내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평가자로서의 언어보다 경의와 존경이 먼저 앞섰다. 이 두 단체가 관계와 생애사라는 축에서 깊이를 보여주었다면, 선사랑드로잉회는 몸과 매체, 장르의 경계 자체를 사유하고 재구성하는 방법론적 실험에서 깊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그러나 동등한 무게의 성취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이 각자의 현장 안에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례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단체 간 상호 참관, 사례공유회, 강사·기획자 네트워킹 자리가 정례화된다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실험이 다른 현장에도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 예산 편성에서 재료비·사례비가 실제 시장 단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사랑드로잉회처럼 대형 캔버스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다원예술·시각예술 장르에는 유형별로 현실화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심의 기준이 포용성(참여 인원, 장애 유형 다양성)에 치우치기 쉬운데, 예술적 수월성과 개별성·동료성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정성 지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1차 연도의 시행착오와 자체 성찰이 2차 연도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하면, 단발성 지원보다 다년도 연속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성과의 축적과 심화에 더 유리하다. 넷째, '다원예술'과 같이 두 장르 이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일 장르 틀로는 평가와 지원 모두 어색해지는 지점이 있어, 이번 사례 공유를 계기로 융합형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유형 구분과 심의 언어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안지언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및 글로벌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
노원의 다운신드롬 청년 20명과 융합예술놀이로 만난 3차년 때, "왜 계속 만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다. 시혜도, 선(善)에 대한 환상도 아닌, 그들이 발현하는 예술의 다양성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자극받는 자신이 좋았기 때문이다. 생애사적 예술경험과 문화예술·사회를 잇는 연구, 그리고 학생 지도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수정한 과정 기록은 귀중한 자산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아르코예술극장 앞의 문구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술 안에서 꿈꾸고, 예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운영 사례를 교육 설계와 내용의 전문성 및 체계성, 교육 수행의 성실성, 그리고 교육 활동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개별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지원사업 전체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육 콘텐츠의 전문성 강화와 교수자의 성장

예술단체들은 다년간 쌓아온 장애 예술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예술 장르의 고유한 교육 원리를 장애 예술교육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교육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농인 무용수를 위한 촉각 중심의 접촉즉흥,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및 신체 움직임 기반 음악 교육,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림 악보와 맞춤형 편곡 악보, 해외 연극교육 방법론을 국내에 맞게 재구성한 교육, 음악치료사와 협업한 통합예술 방법론처럼 장르의 고유성은 지키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체계성의 발전은 장애인 대상 교육을 지나치게 쉽게 풀거나 체험 위주로 구성해 온 방식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을 온전한 학습자로 존중하는 일인 동시에 장애인이 전문적인 예술을 경험할 권리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성과는 교육 참여자뿐 아니라 교수자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질은 결국 교수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매 차시 참여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강사진이 함께 기록하고 논의하며 수업을 수정해 나간 사업들에서, 참여자와 함께 성장하는 교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의 서사를 중심에 둔 예술교육

교육 제공자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예술로 드러내도록 돕는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이끈 연극 교육,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가사로 써서 음원을 만든 음악 교육, 직접 채집한 소리와 자전적 이야기를 창작의 재료로 삼은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기결정의 경험이 됩니다. 그동안 장애는 주로 타인의 시점에서 다뤄졌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일상과 감정, 욕망과 꿈을 스스로 이야기할 때 그 서사는 관객에게 고유한 감각과 관점을 지닌 또 하나의 삶으로 다가가며, 당사자는 예술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주체성을 세워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된 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공연이나 성과공유회로만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교육 참여는 그 자체로 장애인이 집 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회적 통로가 됩니다. 비자립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예술 수업은 동료를 만나고, 강사와 관계를 맺고, 집단 안에서 역할을 맡는 사회적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예술가의 만남 자체를 교육의 구조로 삼은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리를 맞추는 통합 앙상블, 질서와 감정 조절 같은 사회적 약속을 규제가

아닌 함께 지켜 갈 가치로 노래하게 한 사업,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집단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게 한 사업은 예술교육이 관계를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예술교육의 확산

장애예술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운영한 사업도 의미가 컸습니다. 복지관, 재활원, 거주시설, 학교와 연계해 장애인의 생활 공간 안으로 예술교육을 들여온 사업도 많았으며, 한 교육사업이 지역 복지기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진 것은 예술교육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지역의 교육 기반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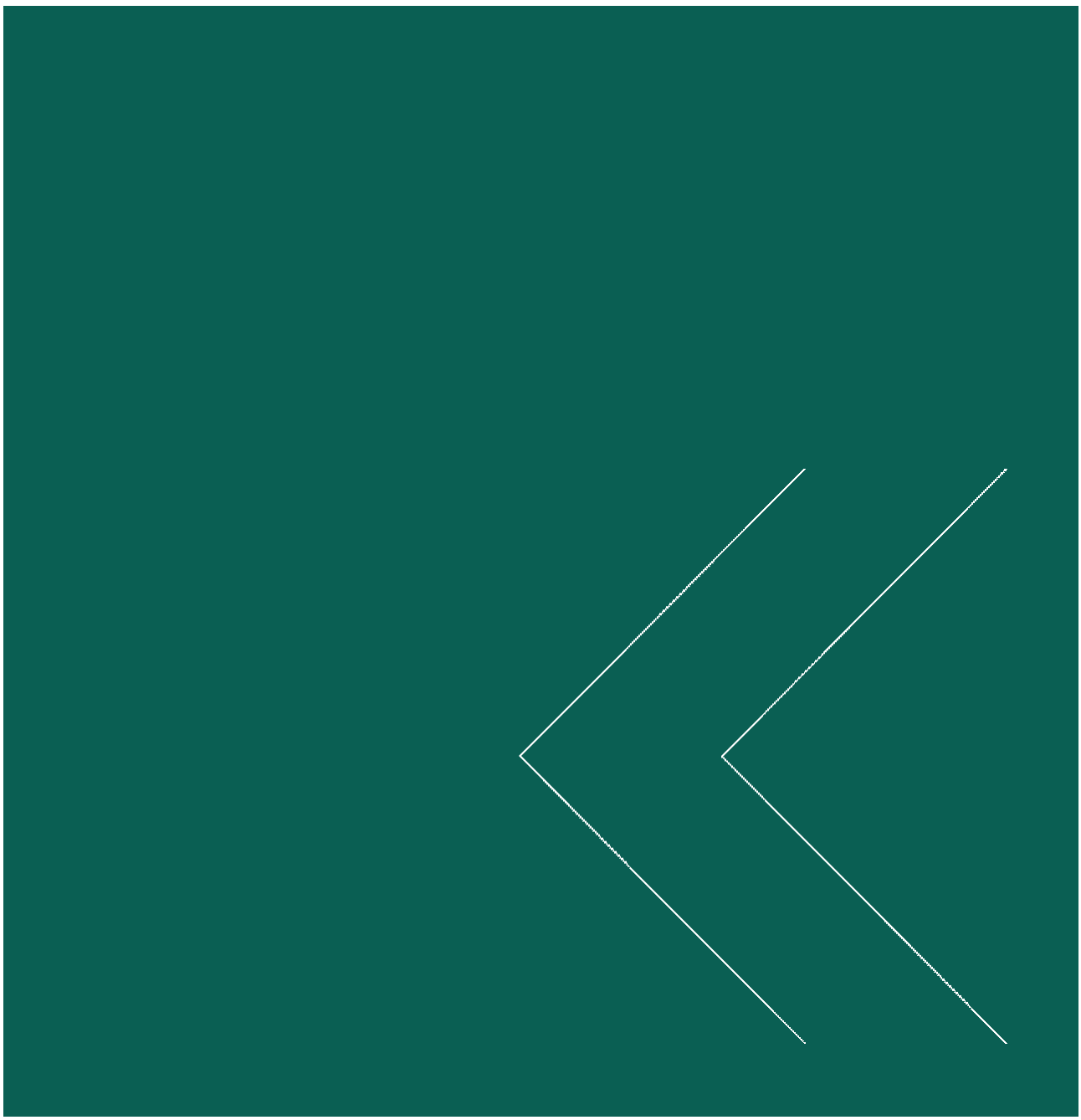
많은 사업에서 참여자의 변화와 강사진의 교수 방법 수정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현장은 가변적이어서, 계획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교수자가 고민하고 수정한 교수 전략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매우 중요한 성과이자, 다른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참여자의 작은 변화와 현장에서 수정된 교수 방법을 꾸준히 기록하여 성과로 함께 제시한다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하나의 교육 방법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교육은 한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지원을 통해 교육 콘텐츠는 전문화되었고, 교육의 중심에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놓이기 시작했으며, 교수자와 기관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현장의 경험이 기록되고 공유되어 다음 단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와 장애인의 노력이 모두의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정희정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 >

장애예술의 사회적·예술적 의미와 그 실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장애무용 작품 모모댄스 안무를 위한 예술기반 실행연구」, 「Effect of adapted dance program on gait in adult with cerebral palsy」, 「Conceptual framework for creative dance-based practice in cerebral palsy」 등 3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대표작으로는 <코나투스, CONATUS>와 <코나투스 옴니버스, CONATUS OMNIBUS>를 안무했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 (프로듀서, 출연/16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상, 8회 서울무용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이 있다.

4. 부록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참여 단체
2023-2024 | 2025-2026

단체명 | 소재지 | 교육 분야 | 참여사업명 | 홈페이지, SNS 주소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속 지원 사업명은 운영 첫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0set프로젝트
서울 마포구 | 다원예술
2023-2024 등장 연습 워크숍 <짜잔>
2025-2026 자기 설명 프로젝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0setproject

29동
서울 중랑구 | 무용
2023-2024 춤 언어의 확장 reborm movement
https://www.29dong.com/Education
@29dong_

Dominant Agency
경기 성남시 | 음악
2025-2026 청각 장애인 대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 <몸으로 음악하기>
https://www.dominant.co.kr

고성도예예술촌
경남 고성군 | 시각예술
2025-2026 고성청년예술촌 x 발달장애인 창작 연결 프로젝트
@goceramic

국악콘텐츠연구소 노리푸리
경기 수원시 | 전통예술
2023-2024 마음 속의 마음
@artcontentsteam_noripuri

극단 드라마라운지
서울 성동구 | 연극
2023-2024 배우의 시작-나를 찾아가는 그림책 연극여행
2025-2026 헌터 하트비트 메소드(HMM) 연극놀이 셰익스피어의 <십이야>
https://www.dramalounge.co.kr
@dramalounge7

극단북새통
서울 성북구 | 연극
2023-2024 내 얘기 좀 들어봐 3
@playbst

꿈꾸는베프
부산 부산진구 | 다원예술
2025-2026 쓰고 노래하는 장벽 없는 제작소
@dreamingbarrierfree

내가그린오티즘
인천 중구 | 시각예술
2025-2026 내가그린오티즘 미술 교육

다도스튜디오
서울 동작구 | 다원예술
2023-2024 특별한 사람들과 떠나는 예술 소풍
https://blog.naver.com/dadostudio
@dadostudio_official

대구무용교육원
대구 동구 | 무용
2025-2026 춤이랑 놀자~ 팔도유람!

문화나눔터(다)
경남 창원시 | 다원예술
2023-2024 물끄러미, 서서히~ 'today ART'

밝은방
서울 은평구 | 시각예술
2025-2026 전국 발달장애 창작자 대상 온라인 미술워크숍
https://brightworkroom.imweb.me

@brightworkroom2018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제주 제주시 | 음악
2025-2026 발달장애청소년 음악가 양성교육
https://www.scatdream.co.kr

사단법인 평범한작업실
경기 고양시 | 시각예술
2023-2024 발전기 캠프
https://www.ordinarywand.com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경기 수원시 | 시각예술
2023-2024 signature of ableartist
https://www.ableart.or.kr

서울장애인부모연대마포지회
서울 마포구 | 예술일반
2023-2024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Show me the YOU!
https://cafe.daum.net/mapozzangbumo

선사랑드로잉회
서울 송파구 | 다원예술
2025-2026 우리 몸 크로키 수업
@sunsarang.drawing (페이스북)

스윗 뮤직 가든(S.M.G)
광주 서구 | 음악
2023-2024 어린왕자의 좌충우돌 예술행성 여행기
@sweetmusicgarden

아트릿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 시각예술
2025-2026 나의 표현이 예술이 되다
https://blog.naver.com/artreat

아트앤힐링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 음악
2023-2024 슬기로운 일상생활 '나도 송메이커'
https://www.artnhealing.com

아트엘 (Art EL)
서울 성동구 | 다원예술
2023-2024 몸에서 몸으로

아트컴퍼니나우
서울 강북구 | 연극
2025-2026 뛰고 놀고 나는 연극놀이터
http://www.nowcompany.co.kr

여러가지연구소
경기 부천시 | 다원예술
2023-2024 얼음땡 프로젝트
@gajigajilab

여성을위한오픈기술랩
서울 중구 | 다원예술
2025-2026 소리 없는 소리 키트 '햅-킥' 워크숍
https://womanopentechlab.kr
@womanopentechlab (페이스북)

예술하는 아이다
서울 강북구 | 연극
2025-2026 아홉사람 더하기 (장애예술 청년 예술가 양성)
@idoing_art

올리브와 찐콩
서울 광진구 | 연극
2025-2026 프로젝트 당당
https://olivekong.com
@olive_jjinkong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충남 홍성군 | 전통예술
2025-2026 예술로 만나기 오래오래 프로젝트 '탈 쓰고 추는 춤'
https://blog.naver.com/chunji_in
@urimunhwa_kkun
https://www.youtube.com/@우리문화연희단꾼

융합예술교육 이지아트
경기 용인시 | 다원예술
2025-2026 융합예술교육 이지아트(친구와 함께 떠나는 세계 블루마블 여행)

인사이트비주얼
서울 중랑구 | 시각예술
2023-2024 다섯 손가락 셀피멘터리

정TREE 프로젝트
서울 성북구 | 다원예술
2025-2026 중년기 장애 여성의 예술적 여정
@jungtreeproject

조용한수다 공연단
부산 중구 | 음악
2025-2026 누누프로젝트
https://www.youtube.com/@josuda2013

죠이풀챔버콰이어
서울 동대문구 | 다원예술
2023-2024 아름다운예술학교
https://jjoyful.co.kr

찰리재즈오케스트라
대구 남구 | 음악
2025-2026 타악기 앙상블
www.youtube.com/@찰리재즈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 음악
2023-2024 발달장애 전문음악인 양성 '아트빌리티 아카데미 시즌2'
2025-2026 발달장애 전문음악인 양성 '아트빌리티 아카데미 시즌4'
@artbility_korea
https://www.youtube.com/@코리아아트빌리티체임버

쿤스트파이
경남 창원시 | 음악
2025-2026 너나들이 소리 에세이
@kunstpie

퍼포밍아트_더몸(Momm)
전북 군산시 | 무용
2023-2024 춤의 일상, 맞:춤
2025-2026 PLAY GROUND:말을 건네다
https://www.youtube.com/@momm766

푸른영상
인천 강화군 | 다원예술
2023-2024 동네에서 뮤지컬 영화 만들기
@docupurn (페이스북)

풍경놀이터
서울 동작구 | 문학
2023-2024 장애 문학 예술인 양성 교육
2025-2026 농·청각장애 작가 양성 _ 전문가 과정
https://pgplayground.co.kr

핸드스피크
서울 은평구 | 예술일반
2023-2024 (예비/전문) 농인아티스트 양성
http://handspeak.co.kr
@handspeak.korea
https://www.youtube.com/@handspeakkorea

희와래
인천 강화군 | 시각예술
2025-2026 홀씨가 날려 꽃이 되다
@heewarae_official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사례집
2023-2026년 선정 사례를 기준으로
헤맨 만큼 남겨진, 정답 없는 교육의 기록

발행인 방귀희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총괄 예술지원부
제작 비사이드컬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www.kdac.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이메일 ieum@kdac.or.kr
전화번호 02-760-9700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게 있으며, 책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조건(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